전북금연지원센터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금연성공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병원 외래1관 1층
TEL : 063) 859-2400 ~ 2410 FAX :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6년 3월 31일 목요일 (음 2월 23일) 제1530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4.13 총선 D-13

현역 국회의원 총선 행보 따라

지방의원 알아서 '줄서기'

최규성 공천 탈락 · 김관영 당적 변경 등 인해 추종하던 김제 · 군산시의원 일부 더민주 탈당 지방자치 의미 퇴색… 지역민은 안중에도 없어

4.13총선을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집단 탈당하는 등 당 분열이 멈추질 않고 있다.

직계로 '모신' 현역 국회의원이 탈당하거나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 자신들의 정치적 진로가 불투명해지면서 이뤄지는 전형적인 철새정치 구습이다.

일각에서는 계파정치에 함몰된 천박한 일부 정치인들의 '줄서기' 문화로 지역민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9일 전주시의회 김윤철 · 양영환(무소속) · 소순명 의원(더민주당)은 전북도의회에서 국민의당 입당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지역 의제나 지역의 가치를 중심에 놓지 않고 오로지 중앙 바라보기에만 몰두하면서 지역의 여당만을 자임해온 정치세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이라며 "정치를 새롭게 더 나은 전북을 위해 작은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민의당 전주 선거구 후보를 돕기 위해 두 팔을 걷고 있다.

앞선 28일 김제시의회 정성주 의장 등 김제시의원 11명 역시 "정당이 아닌 김제시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으로 단체 입당했다.

김제시의원 총 12명 가운데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탈당의 주된 이유는 더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김제 · 부안 선거구를 단수 추천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민주당의 해당 지역 단수 추천 후보는 컷오프당한 최규성 의원 경쟁상대인 김춘진 의원이었다.

결국 최규성 의원을 따르던 지방의원들의 항명성 집단 탈당인 셈이다.

지방의원들의 집단 탈당은 이 뿐 아니다.

지난 1월 당시 김관영 의원이 더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입당한 이후 직계 지방의원들의 대규모 탈당이 논란된 바 있다.

실제 지난 1월1일 기준 총 24명의 군산시의원 정당 구성을 보면 더민주당이 18명(비례대표 포함)으로 75%를 차지한 절대다수당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현재 국민의당 소속 군산시 의원은 15명으로 급증한데 반해 더민주당 소속 의원은 6명으로 대폭 감소됐다.

같은 기간 익산시의원(총 25명)의 국민의당 입당 의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이날 국민의당에 입당한 3명 의원을 제외한 5명의 당적이 변동된 전주시의회도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더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경선에서 최형재 후보에게 탈락하자 같은 지역구 광역 · 기초의원 10명이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 경선 재심을 강력히 요청하며, 이를 묵과한다면 탈당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도내 30여명의 전현직 광역 · 기초의원은 국민의당 전주갑 김광수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기득권을 쥔 정치인들은 지역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에만 눈이 멀어 지방정치를 철저하게 농단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던 사람이 바로 김 후보"라며 김 후보에 대한 애정을 나타냈다.

전 · 현직 지방의원은 전현직 9명의 도의원과 전주시의원 21명 등 모두 33명이다.

지방의원들의 주된 줄서기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손에 쥐고 있는 '공천권' 때문이다.

타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경우 자신들의 이름이 적힌 소속 지방의원 명단 전체가 '물갈이'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합집산의 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지방의원들간 지방자치 의미가 그만큼 퇴색하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으로 돌아간다는 뼈아픈 충고다.

도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후보에 대한 과도한 줄서기로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지방자치 권리를 버리는 것 아니냐"면서 "이 때문에 지방의원이 지역민과 지역을 위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당론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폐해가 거듭되기 때문에 이제는 유권자들의 단호한 심판이 있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국방 중기계획 장병복지예산 전체 5%에 그쳐

국방부가 30일 발표한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의 전체 예산 226조5000억원 가운데 장병 복지 및 병영 환경 개선 등과 관련한 예산은 1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4.94%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 ·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장병들의 사기를 제고할 수 있는 핵심 요인인 월급과 복지 등 병영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가 발표한 '2017~2021년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병 봉급 인상 및 생산적 군 복무여건 조성(8000억원) ▲질 좋은 급식 제공으로 장병 기본체력 유지 보장(5조7000억원) ▲장병 복지증진 및 병영 환경 개선(3조6000억원) ▲국방 의료지원체계 발전(1조1000억원) 등 '선진 국방환경 조성'을 위해 총 1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됐던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에서 병 봉급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1조3000억원이 배분됐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병 봉급 인상 및 생산적 군 복무 여건 조성에는 8000억원만 배정됐다.

장병 기본 급식비 단가의 경우에도 '2016~2020년 국방 중기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9441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계획에서는 2021년까지 8339원 올리는 것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를 두고 장병 복지 및 병영 환경 개선에 대한 군 당국의 의지가 다소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용주 기자

30일 국민의당으로 20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전주 선거구 3명의 후보들(왼쪽부터 정동영 · 김광수 · 장세환)은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전주를 관광도시로 통 크게 바꿀 터"

국민의당 전주권 후보자들, 공동 공약 발표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청년파크 재탄생 등

"전주를 관광도시로 통 크게 바꾸겠다."

국민의당 김광수(전주갑) · 장세환(전주을) · 정동영(전주병) 후보는 30일 전북도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이 내놓은 공동 정책은 ▲전주종합경기장에 전라밀레니엄파크 조성과 ▲1000개의 소호점포(창의적 점포) 육성 프로젝트 추진, ▲전주 송천동 농수산물시장 청년파크로 재탄생, ▲전주 노송동 선미촌 및 인근 주거지 '생활활력지구' 지정 등을 내세웠다.

특히 이들은 '관광'과 '자영업자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들은 "고도 성장기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도시가 기회를 가졌지만, 지금은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도시가 질 좋은 일자리와 경제 활력을 만드는 시대"라며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 1,000만 명이 한 명당 1만원씩을 쓰면 1,000억이고, 10만원을 쓰면 전주에 1조 원대 시장이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주지역 국회의원이 국민의당 돌풍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국민 64% "이번 선거, 반드시 투표하겠다"

40대 이하 ↑ 50대 이상 ↓

국민 63.9%가 이번 4 · 13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투표참여 의향 및 사전투표제도 인지도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선거에 '매우 관심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70.8%로 지난 19대 선거 결과보다 5.2%p 증가했다.

투표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이 63.9%였다. 연령대별로는 19~29세 이하 55.4%, 30대 59.6%, 40대 63.2%, 50대 65.4%, 60세 이상 72.8%인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선거에서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56.9%)와 비교하면 적극적 투표참여 의향층이 7%p 증가했다.

40대 이하의 투표참여 의향은 증가한 반면, 50대 이상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선거 투표참여 의향은 19~29세 이하 36.1%, 30대 47.1%, 40대 56.3%, 50대 67.4%, 60세 이상 76.9% 였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실제 투표율은 54.2%였다.

유권자 81.1%는 이번 '사전투표'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참여 시기는 '선거일인 4월 13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79.6%, '사전투표일에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은 14.0%로 집계됐다.

사전투표가 없을 경우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12.7%가 '투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후보를 선택하는데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인물 · 능력'이 35.1%로 가장 많았으며 '정책 · 공약'이 27.3%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 '소속 정당'(16.0%), '정치 경력'(5.8%), '주위의 평가'(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특별취재반